

2. 순천의 농민항쟁

1862년(철종 13) 임술봉기는 경상도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점차 전라도·충청도로 번졌으며, 함경도·경기도·황해도 순으로 확대되었다. 다음의 표는 1862년에 일어난 봉기를 정리한 것이다.

임술농민항쟁 발생현황

① 경상도

발생지역	일 자	전개과정
단 성	2월 4일 이후	읍권장악·객사(客舍) 회의
진 주	2월 14~23일	철시(撤市)·도회(都會)·초군(樵軍) 참여
개 령	4월 7일(2차)	주모자 옥에서 구출, 장부 소각
인 동	4월 9~11일	향회 개최·관아 공격
함 양	3월 16~21일	공관(空官) 이용, 초군 참여
선 산	4월 2~5일(2차)	신임부사 부임 직후 발생
상 주	5월 15일	양반가·이서가 공격, 순영의 부장 구금
성 주	3월 26일, 4월 2일	공관 이용
울 산	4월 1일	좌병영 관군에게 공격당함
군 위		환포(還布)의 결렬(結斂)
비 안		
현 풍	4월 말, 5월 17일	
거 창	5월 12일	선무사 이참현에게 결전(結錢) 항의, 초군 참여
밀 양		이서 구금, 수령 도피, 3~4개월간 집회
신 녕		이서가 공격
연 일		
경 주		땀나무 채취 금지에 항의
창 원	11월 8~17일	
남 해	12월 21~26일	부호가·이서가 습격, 환곡창고 탈취, 초군 참여

② 전라도

발생지역	일 자	전개과정
능 주	3월 29일 이전	초군 주도

발생지역	일 자	진개과정
장 흥	5월 13일	조관(朝官) 주도, 토호가·관아 습격
순 천	5월 15~17일	관아 훼손·공전 탈취
무 주	3월 29일 이전	체포된 주모자 탈취
낙 안		감영에 보고
순 창		수리(首吏)·수향(首鄕) 임명, 주동자 탈출, 이서 살해
창 평		감영에 보고
용 담		
옥 과		환곡 작전(作錢)분의 폐해 시정, 수령 위해(危害)
남 평		
구 례		
장 수	3월 16일 이후	함양에서 봉기
진 안		읍내 도회, 동헌 습격
동 북		초군 주도
화 순		수령의 부정에 항의
흥 양		
나 주		
제 주	9월 15일	제주성 공격, 목사 축출
정 의	10월	
대 정	11~1월	
여 산		은진민 수천 명 습격, 향리·토족가 43호 훼손
장 성		
익 산	3월 27일	군수 축출, 관속 대거 가담
영 광	3월 16일 이후	감사에게 본관구폐절목(本官擿弊節目) 제시
금 산		
진 도		

발생지역	일 자	전개과정
진 산		
임 피		현령이 자체 처리, 차후 암행어사 조병식이 조사
금 구	5월 11~12일	선무사 조구하에게 12개 조 폐막 제시, 이서 살해
부 안	5월 8~9일	선무사 조구하 입읍(入邑)시 봉기
함 평	4월 16일 ~5월 10일	십조양진(十條仰陳) 제시, 칭병소란(稱兵召亂)·세변(世變), 교원에서 1개월간 둔취(屯聚), 수령 축출
강 진	5월 12일	전라병사 행차 습격
고 산	5월 4일	암행어사 조병식 각면구폐절목(各面揀弊節目) 작성
태 인		
정 읍	3월 29일 이전	
고 창		감영에 의송, 체포된 주모자 탈취
무 장	3월 16일경	
무 안		통문(通文)·도회(都會), 동헌 습격

③ 충청도

발생지역	일 자	전개과정
은 진	5월 10일	반상가(班常家) 10여 호 습격
공 주	5월 10일	11개 향의 소지(所志) 제출
회 덕	5월 10일	관아 습격
청 주	5월 13일	회덕 초군의 습격, 양반 송교회(宋教熙)·송흠삼(宋欽三) 가사(家舍) 습격
회 인	5월 4~15일	초군, 면외촌(面外村)의 반민가 습격
문 의	5월 14일	초군
임 천	5월 17일	양반의 무단 지배와 관속의 탐학에 항의
진 잠	5월 중순	초군
연 산	5월 중순	초군 인가 습격·방화

발생지역	일 자	전개과정
진 천	5월 중순	결가(20냥)의 고가 책정에 항의
청 안	10월 2일	향원가(鄉員家) 5호 공격

④ 기 타

발생지역	일 자	진개과정
함 흥	10월 24일	관속 구타, 파옥방수(破獄放囚)
광 주	11월 3일	보 고
황 주	12월 7일	민막(民瘼) 25개 조 제기

출전 : 망원한국사연구실 편, 『1862년 농민항쟁』, 동녘, 1988, 59~61쪽.

앞의 표에 따르면 1862년에 확인되고 있는 농민봉기가 발생한 지역은 71곳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도 19, 전라도 38, 충청도 11, 기타 지역 3곳에서 농민봉기가 발생하였다. 먼저 경상도지역에서는 2월 4일 단성을 시작으로 2월 14일 진주민란이 10일간 거세게 일어나, 이후 농민봉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라도지역에서는 3월 말 익산지역을 필두로 하여 5월에 이르러 절정에 다다랐다. 충청도지역에서도 5월에 대부분 발생했는데, 이 시기는 춘궁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봉기의 동기가 농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적 문제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5월 들어 농민봉기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중앙정부에서는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하는 등 그 치유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농민봉기는 6~8월 사이에는 잠잠하였다. 그러나 치유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이정청마저 폐기되자 9월을 기점으로 다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이때에는 함경도 함흥(10. 24.)과 경기도 광주(11. 3. 보고), 황해도 황주(12. 7.)지역까지 확대되었다.

농민봉기의 일반적인 양상은 관리의 탐학에 대한 민소(民訴)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연락수단으로 통문(通文)을 사용하여 참가인원을 모으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이를 지방관에게 민소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적극적인 행동양식이 바로 봉기이다. 봉기에 참가한 농민들의 향리나 지방관에 대한 불만은, 관청에 돌입하여 지방관이나 관속(官屬)을 위협 또는 구타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서배들의 경우 목숨을 빼앗기도 하지만, 지방관에게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소극적인 보복조치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또한 농민들은 인신(印信)과 병부(兵符) 등의 제반 문부(文簿)를 탈취하여 불태우거나 없앴다. 문부는 군(軍)·전(田)·양문부(糧文簿) 등 모두 삼정에 관한 것으로, 당시 농민들의 봉기가 삼정의 문란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라도 장흥이나 순천처럼 관청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으나 예외적인 현상이고, 인가 훼손은 거의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민원의 대상이었던 이서(吏胥)·병교(兵校)·사인(士人)·반호(班戶)·부호(富戶) 등의 집이 집중적으로 공격대상이 되었던 것은 농민들이 그들의 집을 부수고 방화함으로써 평소에 쌓았던 불만과 원한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함평이나 공주처럼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선무사에게 그들의 요구조건을 제출하여, 이의 직접적인 해결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의 표에 따르면 봉기의 시발은 경상도지역이었으나 전라도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농민봉기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지역적 특색을 들 수 있다. 전라도는 넓은 평야가 있고 영산강·섬진강 등의 큰 강이 흐르고 있어 일찍부터 곡창지대로 주목되었다. 이에 필요한 관개시설이 발달하였으며, 그 가운데 김제의 벽골제, 고부의 놀제, 익산의 황등제는 유명하다. 이와 같이 전라도는 비옥한 토지로 각종 조세가 집중 부과되었으며, 궁방의 면세전을 비롯한 각종 면세전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당시 면세전 20만 4,635결 중에 약 1/5에 달하는 3만 8,888결이 전라도에 산재) 아울러 국가의 부세 수탈뿐만 아니라 부의 집중

이 심화되어, 농민들의 대부분이 빈농으로 전락하여 삼정의 문란을 가장 피부로 느낀 지역이다. 이에 1862년에 농민봉기가 발발하자 여러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순천은 도호부가 있던 곳으로 호남에서 행정과 유통경제의 중심지이며, 농·수산물을 포함한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도 1862년 5월 15일 정오부터 17일 저녁에 이르기까지 3일간 3,000여 명이 참여한 농민봉기가 발생하였다. 순천봉기에서도 참여한 농민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세문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부당한 환곡의 운영과 결세의 징수시 입은 피해, 그리고 규정 외 조세액을 거두고 있는 데에 항의하였다. 즉, 관속들이 행한 부정을 시정해줄 것과 부사 서신보의 전횡과 수세를 담당했던 이서들의 작간을 문제로 삼고 있다.

순천에서는 5월 15일 이전부터 여러 가지 폐단의 내용이 수록된 익명의 통문이 돌고 있었다. 이어 5월 15일 정오 약 3,000여 명의 농민들이 이마에 백건을 두르고 죽창을 지닌 채 두 곳에 모여 집회를 벌였다. 읍 남문 밖 3리쯤 떨어진 지역과 동문 밖에 있는 환선정 천변에서 각기 집회를 개최한 농민들은 습격대상과 부사에게 요구할 조건들을 의논하였다. 이들은 날이 저문 시각인 저녁 8시를 기해 동시에 성 안으로 진입하였다. 봉기에 참가한 농민들은 성에 진입하자 먼저 이방 김백권과 전임 이방 최응임의 집을 부수고 불태웠다. 동시에 인가 36호도 습격하였는데, 이곳은 대부분 고리대나 고율의 소작료를 통해 평소 농민들에게 해악을 끼쳤던 자들의 집이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전곡을 탈취하였는데, 이때의 행동에 대하여 명화적과 다름없다고 하는 기록이 전한다.

이러한 면을 살펴볼 때 당시 순천의 봉기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집결장소를 두 군데로 택한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며, 백건을 두르고 죽창으로 무장한 것은 조직을 갖추어 행동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치밀한 준비와 신속한 행동으로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마치 명화적처럼 보인 것이다. 뒤이어 농민들은 동헌으로 몰려가 관속인 향소(鄉所)·이교(吏校)·노령(奴令)을 가리지 않고 구타하여 상당수가 중상을 입었다.

16일 오전에 농민들은 달아나지 못한 이방 김백권을 잡아다가 죽였다. 이어 이서들의 집무소인 작청과 향청을 습격하여 각종 문물과 장부를 남김없이 불에 태우고, 공전(公錢)을 빼앗았다. 또한 동헌의 여러 건물들을 파손하고 군노청을 부수었으며 전임 이방 최응임을 붙잡아 구타하였다.

17일 3,000여 명의 농민들은 관청에 들어가 부사 서신보를 상대로 환곡·결세와 원천 징수된 조세에 대해 따지고 그 해결을 요구하였다. 또한 농민들은 수세에 관여했던 전임 이방 김진열을 부사 서신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살해하였다. 현임 이방은 이를 눈치채고 달아나서 화를 면하였다. 저녁이 되자 농민들은 동헌을 나와 해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인가를 부수고 소들을 빼앗았다. 이를 살펴볼 때 순천의 봉기는 다른 지역의 봉기에 비해 수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피하고 있지만, 관속들을 타살하고, 토호·부민들에 대한 공격은 어느 지역보다도 과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공건물에 대한 파손과 각종 문서의 소각 등도 중앙정부의 주목을 끌 만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부사 서신보는 가담자들의 연명과 농민들의 요구조건이 수록된 소장을 입수하지 못해 이 봉기의 주동자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다. 순천봉기를 주도한 사람은 박명식으로, 그의 통제로 통문과 집회 그리고 공해에 들어가는 문제가 치밀하게 짜여져 3일간에 걸친 봉기가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이나 중앙정부 모두 1862년 봉기의 초기단계에서는 국가통치체계의 잘

못 때문이 아니라 일부 관리의 실정과 제도 운영의 잘못이라고 인식하였다. 순천의 경우도 지방관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고 있는 것은 조세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진의 잘못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봉기가 발생한 지역의 수령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시 파면하였고, 봉기에 가담한 농민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관대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는 이를 조사할 목적으로 안핵사와 선무사·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사태의 파악과 민심의 수습에 나섰다. 안핵사는 봉기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사건의 전후를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하는 동시에 사후처리 방안을 건의하면서 사건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봉기가 그치지 않고 확산되자 중앙정부는 그 지방의 관찰사가 봉기를 수습하도록 하였다. 안핵사가 파견된 지역은 진주·개령·익산·제주·함흥으로 정도가 심했던 곳이며, 영남과 전라도에는 선무사를 파견하였다. 또한 암행어사를 삼남지방에 집중적으로 파견하여 지방관의 불법행위를 규찰하고 민정을 파악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온건론은 4월 21일 함평에서 격렬한 농민봉기가 발발하자, 이를 기점으로 하여 가혹한 처벌로 전환하였다. 또한 5월로 접어들자 전라도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확산되었고, 충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도 소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강경책만이 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 순천농민봉기가 발발하자 이 소식은 15일과 17일의 「순천부사첩정(順天府使牒呈)」을 통해 전라감영에 보고되었고, 중앙정부에는 5월 28일 「전라감사장계」를 통해 비로소 알려졌다. 이의 내용은 봉기의 경과 사실과 함께 봉기에 참여한 농민을 체포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대처하지 못한 부사 서신보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철중은 향리를 구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장살한 것과 창고를 털어 공전을 약탈하고 공해를 부순 사실을 대변괴라 인식하고 공권력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세태를 한탄하였다. 또한 비변사에서는 공해를 부수고 공전을 약탈한 농민들을 갈수록 난폭해지는 무리들로 생각하고, 이들을 ‘녹림황지지도(綠林潢池之徒)’에 비유하며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봉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해당지역이 수수방관하기 때문이라 간주하고, 주모자를 참수하고 분등(分等)하는 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게으름으로 탓하여 크게는 군법으로, 작게는 척사(斥事)로 논할 것임을 도병마사에게 지시하였다.

이어 5월 29일자로 부사 서신보를 파면하고 신임부사로 박홍양을 임명하여 봉기의 조사와 주동자 체포를 담당하도록 현지에 파견하였다. 아울러 의금부에서는 봉기를 미리 막지 못한 전임부사 서신보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그를 압송할 서리를 파견하였다.

그 결과 6월 25일자로 전임부사 서신보는 장 80에 고신(告身) 3등을 추탈당했으며, 사죄(私罪)에 대해서는 공감(功減) 1등을 당하였다. 7월 2일 전라좌도 암행어사 김원성은 서계를 통해 “박명식 등이 간리배의 농간에 분격하여 난을 일으켰으며 이때 소훼된 민가는 39호였고 주동자들은 감영에서 조사한 후 처벌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보고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

한편 순천을 비롯한 지역에서 발발한 농민봉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진정 기미가 없자, 중앙정부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하였다. 이에 따라 봉기한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봉기가 삼정의 문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밀접한 삼정개혁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진주 안핵사 박규수는 5월 22일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따로 부서를 설치하여 삼정구폐(三政揅弊)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어 5월 25일 철중은 묘당(廟堂)에 명하여

별도로 관청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삼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개혁·교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5월 26일 비변사에서 기구명칭을 이정청으로 명하여 이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그 위원으로는 정원용(鄭元容)·김흥근(金興根)·김좌근(金左根)·조두순(趙斗淳)이 총재관(總裁官)으로, 김병국(金炳國)·김병익(金炳翼) 등 정부대신들이 이정청 당상관으로 임명되었다. 6월 10일에는 삼정에 관한 개혁을 공포하고, 6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재야 유생 층과 관료들에게 개혁책을 널리 모집한 후 윤8월 19일 삼정이정책(三政釐整策)을 발표하였다.

삼정이정책은 주로 삼정운영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전정에는 전세·대동미·삼수미 외에 추가된 각종 부가세를 일체 혁파할 것과 도결·방결을 혁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각 도의 양세와 대동 작전(作錢) 때 시가가 아닌 상정식례(詳定式例)로 할 것, 각 국방 면세전은 병신정식(丙申定式 : 정조 즉위년에 반포된 세칙)에 따라 쌀 23두, 화폐로는 7냥 6전 7푼 외에 거두는 것을 금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아울러 저지역가의 결럼금지와 제보(堤洑)의 잠경(潛耕)과 축제(築堤) 이후 수리세를 거두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밖에 허결(虛結)·은결(隱結)의 백징(白徵)을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할 것도 포함되었다. 군정은 16세 미만 60세 이상자에 대한 군역세의 징수금지와 교원(校院)의 보솔(保率), 각 기관의 계방(稷坊)이 되거나 유생 또는 사대부를 사칭하거나 묘촌(墓村)에 편제되는 경우를 적발하여 역에 나가도록 하고 있다. 환곡의 경우에는 이를 혁파하고 대신 토지 1결당 2냥씩 거두어 그동안 환곡이자로 운영되는 부분에 충당할 것을 명하고, 이에 따른 실시조례는 각 도에서 환총과 운영내역을 구별하여 대동사무례(大同事目例)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칙에 대한 천명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시행이 뒤따랐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것은 삼정문란을 초래한 정부대신들이 이 기구의 중심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시행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8월 19일 삼정이정책을 공포하면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정청을 없애고 비변사로 그 업무가 이행된 것에서 확인된다. 이것조차도 “너무 서둘러서 완벽하지 못할 염려가 있어 옛날 규범으로 돌아가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10월 29일에 이르러서는 없애고, 본래의 제도로 환원해 각 도의 실정에 맞는 원정구 폐절목(遠政球弊節目)을 새로 만들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이 기간에 잠잠하던 농민봉기가 다시 재발되어 삼남지방을 넘어 경기도 광주, 황해도 황주, 함경도 함흥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미봉책은 이후 지속적인 농민봉기를 유발시켰다. 순천에 인접한 광양에서도 1869년(고종 6) 3월 24일 농민봉기가 발생하였다. 광양의 농민봉기는 참여자들이 머리에 백건을 쓰고 손에는 기치를 들며 죽창을 들었다는 점에서 순천의 농민봉기와 유사하다. 봉기민들은 70여 명으로 방포(放砲)하면서 동문으로 들어와 군기고(軍器庫)로 가서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한 후 동헌을 접수하였다. 이들은 현감 윤영신(尹榮信)을 붙잡아 위협하면서 인부(印符)를 탈취하려 하였고, 성민들 중 체격이 좋은 자를 위협하여 군정으로 삼으니 그 수가 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이들은 “이 거사에 모두 호응하여 한 번 방포하면 순식간에 수만의 병사가 모일 것이며, 또한 영남에서 70여 명이 오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광양봉기가 이제까지의 자연발생적인 농민봉기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봉기의 주동자는 참가자들에게 만약 백성들을 살해하거나 재산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엄히 다스린다는 명령을 내려 성민들 중 살해된 자는 하나도 없었다. 또한 이들은 사창을 열어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일부는 어려운 때에 진휼해야 한다고 다시 사창에 집어넣어 창고문을 봉하였다.

중앙정부는 이 소식을 접하고 현감 윤영신을 파면하고 영광군수 남정룡(南廷龍)을 안핵사로 보내는 동시에 전라병영과 5진영의 정병과 교졸을 출동시켜 토벌케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앞서 봉기민들에게 붙잡혀 곤욕을 치르던 윤영신은 틈을 타 몰래 도망을 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25일 밤 이민(吏民) 수천 명을 모집하여, 이들을 거느리고 반격하였다. 그 결과 현성을 수복하고 가담자 수십 명을 붙잡았으며 나머지도 추가로 붙잡았다.

봉기가 진압되자 주동자인 민회행(閔晦行)·전찬문(田贊文)·이재문(李在文)·권학녀(權鶴女)·강명좌(姜明佐)·김문도(金文道) 6명은 서울로 압송되어 봉기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광양봉기의 주모자인 민회행 등 일당 25명은 장흥에 모여 강진 병영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일단 연기하였다 한다. 이후 3월 18일 일당 30여 명이 하동에서 모여 배에 올라 상선을 가장하고 섬진강을 왕래하면서 봉기의 참가자를 70여 명으로 보충하여 우손도(牛孫島)로 갔다. 여기에서 갑옷과 죽창을 제조하고 산제를 올려 봉기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준비를 마친 후 우손도를 떠나 초남포에서 하루 머물고 23일 밤 광양현을 습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볼 때 광양봉기는 당시의 일반적인 농민봉기와 달리 군사적인 성격을 띠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자연발생적이며 지방관의 학정과 부세문제에 그친 일반봉기와 달리 상당한 계획과 준비기간을 거친 일종의 무장봉기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철종 때 봉기와 다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 주동자를 살펴보면 민회행은 광양 출신으로 당시 44세이었으며, 일찍이 이도(異圖)를 품고 영·호남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도당(徒黨)을 만들었다. 이후 강진거사계획과 광양봉기를 주도하였다. 전찬문은 44세로 태인에서 출생하여 구례로 이사하였으며, 하동장사에서 민회행 일당에 가담하였다. 광양봉기에서는 스스로 '군무총찰(軍務總察)'이라 칭하면서 줄도들을 지휘하였다. 이재문은 27세로 광양 출신으로, 하동장사에서 승선한 후 이 일당에 가담하였다. 광양봉기에서는 현감 윤영신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고, 감옥을 열어 죄수를 석방하였으며 군기를 탈취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 권학녀는 23세로 남원 출신이며, 군부를 점검하고 부대를 편성하는 등 봉기 때 전반적인 일을 점검하였다. 강명좌는 41세로 강진에서 출생하여 구례로 이사하였다. 하동장사에서 민회행 일행에 가담하였으며, 이후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였다. 김문도는 49세로 강진 출신이며, 일행과 결탁하여 강진거사·광양봉기 등을 같이하였다는 죄목으로 처벌되었다.

조사가 끝난 후 민회행·전찬문·이재문·권학녀·강명좌 5명은 무교전로(武橋前路)에서 능지처참되었고, 김문도는 지정불고죄(知精不告罪)로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 광양현에 수금되었던 44명은 좌수영으로 압송되어 효수(梟首)되었고, 김학수(金學守)·정동익(鄭東益)은 엄형 2차 후에 섬으로 귀양보내졌으며, 그밖의 수감자는 풀려났다. 아울러 광양봉기를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원진진사(原進進士) 윤병오(尹秉澳)는 관직에 올랐으며, 파면된 현감 윤영신은 봉기를 진압한 공으로 오히려 벼슬이 더해졌다. 그러나 광양현은 봉기가 일어난 지역이라는 연유로 읍호가 강등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농민봉기에 대해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일시적인 회유책과 진압이라는 강경책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봉기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농민의 정치의식이 성장하고, 외세의 침탈에 따른 농촌경제의 피폐화가 더욱 진행되었다. 이에 조직과 사상을 동반한 동학이라는 종교단체의 기치 아래 농민봉기는 지역성·분산성을 극복하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壬戌錄』, 順天府使牒呈.

龍湖閑錄』 권3, 順天府使回報.

증정원일기』.

최진옥, 「1860년대의 민란에 관한 연구」, 천통시대의 민중운동』하, 풀빛, 1981.

박광성, 「고종조의 민란연구」, 천통시대의 민중운동』하, 풀빛, 1981.

광양군지편찬위원회, 황양군지』, 1983.

망원한국사연구실 편, 1862년 농민항쟁』, 동녘, 1988.

